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축하합니다[세례 및 양육수료]
조경임 성도(바나바/김은희 집사) 김은희 속 4여선교회
장유란 성도(바나바/조정선 집사) 4여선교회

3 공동식사
성도 간에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섬김 김현숙 집사 봉사 3여선교회

4 속장밴드
오늘(28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5 반주자 모집
추수감사절 남성중창팀 특송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주진범 장로 010-3755-0179

6 교우소식[장례]
故 신길순 권사/강정원 권사의 모친 김문숙 권사의 시모

[9월 임시기획위원회 결의사항]

1. 교회 내 금전거래 금지: 최근 교회 안에 투자 및 물건 판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어떠한 이유든 투자, 물건판매를 비롯한 금전거래를 철저히 금합니다. 발생 시 교회 안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교회차량구매(12인승)
3. 사역자충원(다음세대 담당사역자)

새가족 등록 절차

- 1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2 일대일 양육
- 3 속회(소그룹) 배정
- 4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본당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 시 는 길



[외부 주차장 이용]

모빌리티 주차장
강남구 방고개로24길 61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신종현 양승경 선교사 T국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국내 영파교회 교병선목사
익산벨렐교회 마준철목사
예교회 박정현목사
엘리사교회(군선교) 최이용목사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극동방송
행복한선교회
성남의료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내가 만민중에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이주희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성경	창세기 29:15-35[새번역]	
설교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나에게"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마음이 상한 자를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10/5 1부 이혜경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10/12 1부 임순희 권사
2부 마승초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로마서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김경현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교회를위한기도회]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목요전도] 오후 6: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_창세기 29:15-35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 라헬을 만납니다. 그녀를 사랑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야곱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게 됩니다.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장녀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분명한 속임이었습니 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속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고, 속는 자가 다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반복된 모습입니다.

라헬은 사랑받았지만 아이가 없었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사 자녀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창 29:31). 사람들은 레아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시므온: “들으심.” 하나님이 자신의 외로움을 들으셨다는 믿음이 담겼습니다.

레위: “연합함.” 이제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갈망이 담겼습니다.

유다: “찬송함.” 이제는 사람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고백이 전환됩니다.

가정예배

레아의 마지막 고백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을 세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눈물과 상처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속이고 속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흘러올 때, 우리의 상처와 고통은 더 이상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며, 연합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다고 느낀적이 있나요? 그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 2) 우리 가정 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나요?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선~~ / 감사헌금-김바울~~감~~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